홀트소식

AUTUMN 2020 VOL.199

65TH 더큰가족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소식
www.holt.or.kr

가을 이야기

'제14회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선발된 진성 군은 축구를 사랑하는 스포츠맨이고, 윤주 양은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리꾼입니다. (7p 계속)

Contents

04 **꿈과 희망 1**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지원 결과보고

07 **꿈과 희망 2**
홀트와 함께 꿈을 향해 내딛는 한걸음

10 **행복한 가족 만들기 1**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12 **행복한 가족 만들기 2**
양육을 결심한 엄마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14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생후 5개월 된 사랑이를 홀로 지켜내고자 하는 엄마

16 **행복한 가족 만들기 3**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365 키즈키트'

18 **Love In World 1**
내일의 '나'를 위한 도전! in Cambodia

20 **Love In World 2**
천사들의 사랑으로 지어진 꿈의 교실

22 **희망풍경 1**
집쿡(COOK)! 해피홀트데이!

25 **희망풍경 2**
아이들의 더 큰 가족, 홀트패밀리#

28 **사랑을 행동으로**
Since 1955, 시작이 사랑이었습니다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설태호 이사장(주복상사 대표)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임부웅 이사(前 HICS 부회장)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최수열 감사(삼도회계법인 파트너) | 박철용 감사(삼덕회계법인 부대표)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광주지부	062)227-8877
경기지부	031)217-3292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6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90-2966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마포클로버	02)322-3325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02)331-7086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199호 · 계간 **발행일** | 2020년 10월 5일 **발행인** | 설태호 **편집인** | 김호현
발행처 |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00 **후원ARS** | 060-700-1006
홈페이지 | www.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좋은 사연 · 좋은 제언 | pr@holt.or.kr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지원 결과보고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팀 **강명혜**

전 세계적 재난,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일상

작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집 밖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는 물론 집 앞 놀이터조차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장 먼저 걱정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손길에 힘입어 지난 2월부터 지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두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필요했던 음식과 아이들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연필이 키트 안에 있어서, 힘없는 손이지만 무언가를 칠하려는 모습을 보여 너무 기뻤습니다. "

- 나눔키트를 지원받은 어머니

"가장 필요한 마스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간식을 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사랑해요' 라고 외쳤어요. 지원해주신 손길에 보답이 되도록 아이들을 더욱 건강하게 양육하겠습니다. "

- 아동보육시설 생활복지사

코로나19 국내 긴급 지원 현황

- **후원금품 총 모금액 558,981,385원**
- **후원금품 총 지출액 466,815,495원**

(미집행 금액은 코로나19 위기가정 아동의 의료비 및 심리정서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0.09.30. 기준

나눔키트 지원 현황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업기간	2~3월	3월	3~4월	4~5월	5~7월	연중
지원인원(명)	1,257	1,002	750	11,594	596	42 (추가지원 예정)
지원대상	저소득가정, 미혼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 입양대기 아동	저소득가정, 미혼한부모가정, 시설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저소득가정, 미혼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미혼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미혼한부모가정, 시설보호아동, 심리정서치료 아동	의료 또는 심리 정서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 아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코로나19 예방 **'호흡기예방물품 지원'**	코로나19 피해가정 생계지원 **'생필품 & 호흡기 예방물품 지원'**	아동의 일상회복 **'놀이키트 지원'**	가정의 일상회복 **'심리정서지원 & 의료지원'**
대구/경북 중심	수도권 지역 중심	전국	전국
●호흡기질환 예방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세제류, 치약, 가글	●호흡기질환 예방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세제류 ●생필품 : 두유, 즉석밥, 반찬류, 아동간식	●호흡기질환 예방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생필품 : 즉석밥, 반찬류, 아동간식 ●놀잇감 : 보드게임, 컬러링북, 학용품	●심리정서치료비: 연 최대 240만 원 ●의료비: 연 최대 200만 원

전국 위기가정 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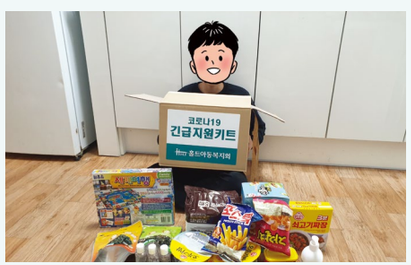
지난 2월,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되어 외출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전국 위기가정들은 기본적인 위생용품부터 생필품까지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던 때,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많은 후원기업과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배우 이민호

▲ 가수 (여자)아이들

▲ 배우 고소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그러나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감염이 발생하면서 종식될 듯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에 가장 취약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코로나19 취약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기 위해 생계, 의료, 심리정서, 주거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더 많은 후기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스토리캐스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홀트와 함께 꿈을 향해 내딛는 한걸음

'제14회 아름다운 청소년'
전진성 & 신윤주 학생

진성 군과 윤주 양은 꿈을 향한 마음이 참 단단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확실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성 군은 축구를 사랑하는 스포츠맨이고, 윤주 양은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리꾼입니다. 이들이 뿌린 꿈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프로 축구 선수로 가는 길

진성 군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또래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축구팀에서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진성 군은 중학교 때 수영 · 합기도 · 레슬링, 초등학교 때는 씨름부 활동을 한 다재다능한 운동선수입니다. 진성 군은 친구들과 팀을 꾸려 아마추어 중학생 축구대회에 출전하며 축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 신경이 좋은 진성 군이 자연스레 골키퍼를 맡았습니다. 공을 꽤 잘 막았고, 팀 성적도 좋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막상 골키퍼를 해보니 저랑 잘 맞았어요. 경기가 끝나고 축구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용인시에 있는 동네 축구클럽에 찾아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면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할수록 축구가 더 좋아졌어요." 특히 골키퍼는 실수하면 바로 실점을 당하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부담감이 큰 만큼 슈팅을 막은 후의 희열과 자신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진성 군은 축구를 하고 경기를 뛰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진성 군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덩달아 성격도 활발해지고 당당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진성 군을 보며 운동을 하면서 웃음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홀트, 다시 꿈꿀 기회를 주다

진성 군은 지난 1월 현재의 축구팀에 입단했습니다. 곧바로 1월 8일부터 19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허저국제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소속 축구팀은 이 대회에서 무패 우승 기록을 세웠고 진성 군도 함께 짜릿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특히 우승이 확정된 상황에서 치러진 마지막 경기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선방으로 무실점을 이끌며 동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차비와 식비, 회비를 비롯해 골키퍼에게 필요한 장갑과 축구화 등을 사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성 군에게 아름다운 청소년 선정은 지원금이라는 한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축구를 포기했을 수도 있고, 프로 축구 선수라는 꿈에 도전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원금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하고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쁩니다.” 진성 군은 매일 오전 · 오후 훈련을 마치고 개인 훈련을 합니다. 일찍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고단해도 개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쉽지 않았던 다이빙과 킥도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연습 중입니다. “아직은 2학년이라 경기에서 뛸 기회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팀을 대표해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이 목표로 하는 전국대회 4강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프로 축구단에 입단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진성 군. 몇 년 후 프로 축구 선수로 운동장에서 만나게 될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다시 힘을 내서 프로 축구 선수라는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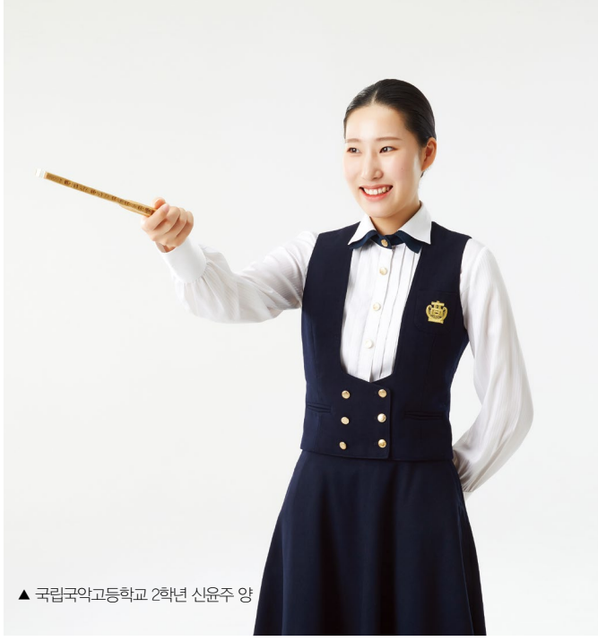
◀ 동산정보고등학교 2학년 전진성 군

판소리학교를 만들어 국악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어요.

천생 소리꾼, 평생 하고 싶은 소리를 만나다

어린 시절 윤주 양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아기 때부터 TV를 보며 곧잘 노래를 따라부르곤 했습니다. 그런 윤주 양의 끼를 눈여겨보던 아버지가 여섯 살 어린 윤주를 데리고 판소리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틔우려고 시작한 판소리 공부가 어느덧 12년째입니다. 적성에도 맞고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국악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자연스레 가수가 아닌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만큼 판소리에 대한 윤주 양의 애정은 대단합니다. “흔히 판소리와 민요를 혼동하는데 엄연히 달라요. 민요는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지만, 판소리는 북을 치면서 합니다. 또 민요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흥얼거리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곡이 많고, 판소리는 이야기가 담긴 음악이라는 점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아리랑’은 민요, 춘향가에 나오는 ‘사랑가’는 판소리예요.”

열정도 누구 못지않아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연주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방송 출연, 해외 연수, 대회 참가, 개인 연습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었습니다. 마침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함께 봉사팀을 꾸렸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피리, 해금을 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첫 공연 때 ‘흥보가’ 첫 대목에서 놀부가 심술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분이 크게 웃으시며 호응을 잘 해주셨어요. 흥보가 쫓겨나는 대목에서는 우는 분도 계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많이 됩니다.”



▲ 국립국악고등학교 2학년 신윤주 양

누구나 찾아와 배우는 판소리학교 만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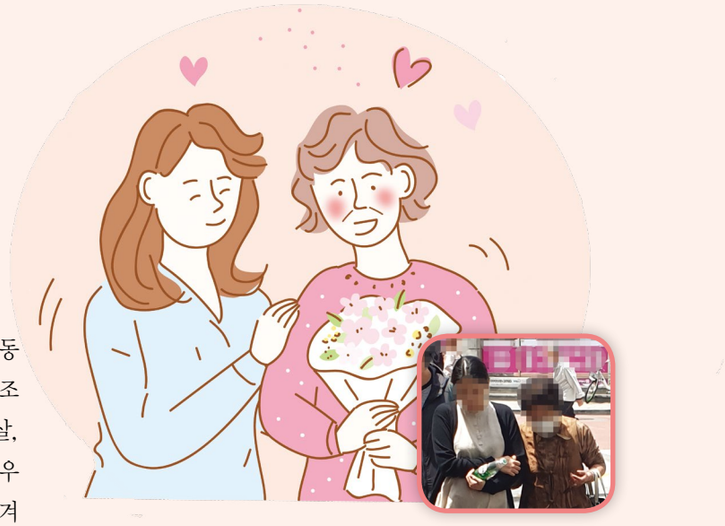
윤주 양은 네 자매 중 둘째입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레슨비와 기숙사비, 교통비 등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회 응시료와 의상비 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여러 장학제도를 알아보던 중 어머니의 추천으로 ‘아름다운 청소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다른 홀트아동복지회의 취지와 의미가 마음에 더욱 와 닿았습니다. 선정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레슨도 가지 못해 힘들었는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윤주 양은 오랜 시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꾸준히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판소리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짧게 활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0~60대까지 오랫동안 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수록 기교보다는 깊이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고향인 경남 진주에 판소리학교를 만들어 국악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다는 윤주 양.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방문해 편하게 소리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윤주 양은 오늘도 꿈을 향해 바쁘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가정지원센터 **이은정 센터장**



1984년 1월 어느 날, 자정을 막 넘긴 부산의 작은 동네 깜깜한 밤하늘 아래 만삭의 몸으로 조심스레 조산소의 꽁꽁 얼어붙은 문을 두드립니다. 여덟 살, 그리고 두 살 된 두 아들은 위 수술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일 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홀로 딸아이를 낳고 이 핏덩이를 어쩌지 못해 소리죽여 울고 있는 엄마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네 집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겨우 얹혀있는 데다가 월세를 벌써 열 달이나 밀렸고, 3월이면 학교에 입학해야 할 큰아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더 캄캄해집니다.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조산사 할머니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새댁, 집에 어린 것들이랑 아픈 바깥사람 생각해서 마음 다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 핏덩이는 아기 없는 집에 양자로 보내면 어때? 배곯을 걱정 없이 잘 키워 줄 거야. 학교도 보내주고”

모르겠습니다. 배곯을 걱정 없이 잘 키워 줄 거라는 말이었는지 집에 있는 어린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이었는지 엄마는 닷새 된 작은 아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어느 엄마가 제 자식을 떼어놓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크면 찾으러 올 수도 있겠다는 한 가닥 희망으로 모진 세월을 버텨냅니다.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입밖으로는 내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미안함을 가슴 깊이 눌러 담으며 큰아들이 열여덟 되던 해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큰아들을 마흔 즈음에 사고로 가슴에 묻으며 이게 딸을 입양 보낸 속죄라면 달게 받겠노라며 손가락 지문이 다 닳도록 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줄 알았습니다. 바삐 살다 보면 무뎌질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입양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면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는 만큼 딸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집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시절 얹혀살았던 친구에게만 아픈 속을 내보이며 그렇게 위로받고, 적은 돈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해외 빈곤국가 아이들을 하나둘 도우며 내 딸도 어디선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있으려니 생각하며 스스로 토닥입니다.

그렇게 그 딸은 자녀가 없는 가정에 보석 같은 아이로 자랍니다. 외동딸인 것이 늘 속상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커리어를 쌓으며 세상에도 둘도 없는 착한 딸이 되어갑니다. 진심을 담아 사랑하고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할만한 멋진 청년을 만나 부모님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엄마의 얼굴이 그리고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너의 가정을 온전히 꾸릴 때가 되어 이제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며 ‘너를 내 배 아파 낳지는 못했지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엄마의 말이 영화 속 대사처럼 저 멀리서 들립니다. 눈앞에 있는 엄마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려볼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엄마를 이야기하는 엄마는 자꾸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33년을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엄마가 자꾸만 미안하다며 죄인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열이 펄펄 끓어 울던 날이면 같이 울고, 소풍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시험 기간이면 같이 밤을 새우며 꼭 붙어있었던 엄마는 뭐가 미안한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안한지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닌데 딸은 뭐가 서러웠는지 원망을 토해냅니다. 실은 원망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다시없을 서러움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며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다가 어루만지기도 했다가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해 괴롭히며 한 해, 두 해 지나갑니다. 멋진 청년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가 아니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결혼을 하고 아기를 기다리며 딸은 엄마가 되어갈 준비를 합니다. 어렵게 임신하고서야 두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원망인지 뭔지 몰랐던 마음은 고마움과 애틋함으로 바뀌어 용기가 되었습니다. ‘낳아주신 엄마를 한 번 찾아볼까…?’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서야 간신히 수화기를 들어 본인의 입양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낳아주신 엄마를 찾으려고 하니 또다시 그때 그 상처가 되살아나 또 몇 개월 그렇게 고민의 밤이 지나갑니다. 뱃속의 아기가 태동합니다. 밤낮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소통하기 원하는 그 작은 몸짓이 왠지 낳아주신 엄마를 찾으라며 재촉하는 것만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나지 않았을 용기가 나도 모르게 솟아납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고 며칠 동안 결과가 미칠 듯이 기다려지면서도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던 엄마는 심어놓은 채소를 들여다보러 오랜만에 들른 농장에서 낯선 우편물을 발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여섯 글자를 채 읽기도 전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OOO님이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라는 편지를 들고 전화를 걸었지만,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찾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봄비로 하늘이 유난히도 맑던 날, 37년 전 제 살을 떼어 놓았던 엄마는 이제 어엿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뱃속에 예쁜 딸을 품은 딸을 만납니다. 아빠를 똑 닮은 딸이 고맙고 미안해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흐느낍니다. 딸은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덕분에 잘 자라 이곳에 있으니 눈물을 거두시라며 눈인사를 합니다. 서로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이 따뜻한 햇살이 되어 내린 2020년 5월의 어느 날 그렇게 둘은 다시 가족이 됩니다.

* 딸을 만난 감사함으로 친생모는 홀트아동복지회 ‘홀트패밀리샵(#)’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홀트패밀리샵(#)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는 중소상공인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요즘 행복한 나눔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치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양육을 결심한 엄마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나눔협력팀 · 국내입양팀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고 마땅히 축하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미혼인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들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먼저 경험합니다. 엄마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편견, 아픔을 생각하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한 후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어렵게 용기 내어 다시 양육을 결정합니다. 이들이 다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 입양을 결정했다가 다시 아기를 키우게 된 엄마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가현(가명)이 엄마 이나희(가명)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미혼모로 아직 돌이 채 안 된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기 아빠에게도 알렸지만, 이미 헤어진 상태였기에 그는 아기를 책임질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 생명을 품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엄마인 제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미혼모자시설의 도움으로 가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 가현이를 재우고 옆에 누웠는데 제 미래가 까마득했어요. 그날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고 가현이가 저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입양을 결심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사실 가현이를 키울 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보내고 나서 친구들과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현이가 없는 일상은 너무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TV에서는 왜 이렇게 아기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지 가현이가 생각나 울기도 했었죠. 아기 물품이라고는 장난감 몇 개밖에 남아 있지 않은 방에 가현이를 데려오게 된다면 당장 어떻게 먹이고, 입힐지 고민이 앞섰어요. 한부모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암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고민하다가, 홀트아동복지회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가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가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홀트에서는 제가 가현이를 키울 때 어려움이 없도록 물품들을 지원해주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주었어요.

이제는 가현이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준비된 부모와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게 입양을 결정했지만, 미숙하고 부족한 엄마더라도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내 자식이기에 앞으로 가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훈(가명)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23살 김연지(가명)입니다. 성훈이를 출산하고 가족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친언니는 결혼해서 둘이 아기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혼자 아기를 키우려고 하냐며 성훈이와 제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 역시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어려움이 많았기에 성훈이가 엄마 아빠 둘 다 있는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양 보내기로 했어요. 성훈이가 홀트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마음에 위안도 되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성훈이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창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도 시작하며 바쁘게 살면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와 고단한 몸을 누이면 성훈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당장 제 욕심으로 성훈이를 키우기에는 평생 책임질 수 없는 못난 엄마가 될까 꾹꾹 참았어요. 길을 지나다 아기용품 파는 곳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육아용품 가격표를 보니 제가 성훈이를 데려오면 해주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해주는 엄마가 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용기 내어 홀트아동복지회 선생님에게 성훈이를 다시 키우고 싶은 마음을 전했어요. 앞으로 성훈이를 키우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와 당분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받아 성훈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나니 그동안 힘들게 고민만 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고, 성훈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저의 일상은 온전히 성훈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체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성훈이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은 성훈이가 너무 어려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없어 일할 수 없지만, 성훈이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 훗날 성훈이가 성장했을 때 너를 키우기 위해 엄마가 많은 노력을 했고 네가 있어서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제가 성훈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홀트아동복지회에 감사드립니다.

* 홀트아동복지회는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미혼한부모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사랑이를 홀로 지켜내고자 하는 엄마

나눔협력팀 · 아동청소년팀

▲ 사랑이 스토리 확인하기

태어나자마자 희소병을 진단받은 사랑이

사랑이 엄마는 사랑이가 배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래도 부족한 엄마에게 찾아와준 생명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출산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안타깝게도 사랑이는 태어나자마자 골화석증이라는 희소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 골화석증 : 골 흡수 장애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골밀도가 증가하는 희소병

조혈모세포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

사랑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동안 조혈모세포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얼마 전 사랑이에게 맞는 조혈모세포 공여자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후 5개월, 이 어린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비교적 빨리 공여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랑이 엄마의 사정을 알게 된 병원에서는 감사하게도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일부와 수술 후 제반 비용을 지원해주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엄마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에도 많은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는 제 전부에요

사랑이 엄마는 당분간 사랑이의 수술을 위해 사랑이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를 잠시 맡아서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이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생후 5개월 된 사랑이를 병원에 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사랑이 엄마는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일 당장 내야 하는 월세, 관리비 그리고 아무리 돈을 아껴도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양육물품 구입비와 식비 등 꼭 나가야 하는 비용들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 사랑이를 품에 안고 더욱 강해지기로 결심했던, 사랑이를 꼭 지켜내기로 결심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매번 "사랑이는 제 전부에요"라고 말하는 사랑이 엄마. 사랑이가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사랑이 엄마의 어깨에 쌓인 부담과 걱정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사랑이에게 우선 지원되며, 이후 사랑이와 같은 위기가정 아동의 의료비로 지원됩니다.

ARS후원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 KB손해보험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365 키즈키트'

미혼한부모지원센터 **원지현**

미혼한부모 대다수는 육아, 직장, 건강, 심리, 주거문제 등 홀로 아동을 양육하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보다 미혼한부모 자녀의 삶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받지 못하는 미혼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KB손해보험과 함께 2017년부터 물품지원사업 '365 키즈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365키즈키트'를 통해 자녀학습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까지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365 키즈키트' 만족도 조사결과

지원사업이 자녀의 학습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중 **96%**
아동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응답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이 학습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응답자 중 **98%**
학습기회를 받았다고 응답

지원사업에서 가장 만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중 **65%**
경제적 부담 감소

올해도 KB손해보험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365 키즈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미혼한부모 자녀 총 130명(예비 초등학생 65명, 초등학교 재학생 65명)에게 1,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책가방, 학습교재, 학용품 등의 학습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은 학습교재를 풀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이 책가방도 사주지 못하여 학교 보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책가방과 학습교재를 보내주셔서 매일 아이와 같이 문제지도 풀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TV 보는 습관도 고칠 수 있어서 아이보다 제가 더 만족합니다. 오늘 도착한 문제지 보면서 아이와 '2학기에도 열심히 풀어보자'하며 하이파이브했습니다. 우리 민지(가명)가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잘 키워서 사회에 필요한 아이로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친구, 가족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 *요즘 학교에 못 가서 시간이 많았는데 복습 차원에서 아주 딱 맞았어요. 1학년 때 물려받은 가방이 작아지고 많이 헤져서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예쁜 가방을 못 사주는 사정을 어린애가 이해하길 바랐었는데... 가방 보고 아이가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마침 전학까지 간 터라 새 가방에 새 느낌으로 기분 좋게 등교했어요~ 엄마가 못 해주는 것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필요한 것이 많아 부담이 정말 많았는데,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지원받고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할 정도로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비록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이만은 성실하고 올바른 아이로 키워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꾼으로 성장시키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무한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 *앞서 1학기 때 받았던 학습물품으로도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는데, 2학기에도 지원받아 더욱 좋네요. 아이 학습이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교과서 외에 한번 더 풀 수 있는 교재가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고 든든합니다. 처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초보 학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학습물품 구매가 경제적으로 부담되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큰 힘이 되었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65키즈키트'는 단순히 학습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입학을 앞두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한부모자녀의 학교생활을 응원하며 꿈과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응원하겠습니다.

* KB손해보험은 2014년부터 미혼한부모 영유아 자녀에게 양육 필수물품을 제공하는 '365베이비케어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7년부터 미혼한부모 학령기 자녀에게 학습물품을 제공하는 '365키즈키트'까지 함께하고 있는 후원기업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한 도전! in Cambodia

해외사업팀 **이동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2명의 친구가 작년에 대학을 진학하였습니다. 올해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2명의 친구가 12월에 있을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학생대표를 맡은 사리 소티라(Sary Sotheara)는 2012년부터 센터에 다니기 시작하며 캄보디아 왕립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리 소티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1.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사리소티라이고, 12학년 입니다. 좋은 공무원이 되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를 위해 왕립대의 공공행정학과에 진학하여 꿈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Q2. 정말 멋진 꿈이네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휴교라고 들었는데, 공부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 때문에 8월 예정이었던 시험이 12월로 미뤄져서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Q3. 이제 대학교에 가면 센터를 졸업할 텐데 기분이 어때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정말 그리울 거에요. 홀트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 대부분이 깃든 곳이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문화체험 등을 비롯한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Q4. 그동안 후원해주신 후원자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게는 정말 많은 선물과 편지를 주신 후원자님이 계세요. 처음부터 항상 응원해주시고 큰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센터에도 행복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이 따르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

캄보디아에서는 12명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코로나 위기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는 아이들이 빈곤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장학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사랑으로 지어진 꿈의 교실

해외사업팀 **한세희**

탄자니아 다레살렘 테메케 지역의 부자 카루메 초등학교에는 1,225명의 아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아이들 수에 비해 교실은 9개밖에 되지 않아 한 반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많다 보니 오전, 오후반으로 수업을 나누어 운영하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의 해외사업을 후원해주고 계신 후원단체 '천사네트워크'에서는 탄자니아 아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천사 같은 손길을 더해주었습니다. 바로 부자 카루메 초등학교에 교실 2개를 증축한 것인데요. 새로 지어진 교실은 다레살렘 테메케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도 밝은 빛 아래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장이 갖추어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실은 7학년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교실에 여유가 생겨 2부제로 수업하던 5, 6학년 아이들은 1부제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멋진 교실을 선물해주신 천사네트워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탄자니아 정부는 6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하였으며, 마구풀리 대통령은 7월 20일에 탄자니아 내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었다고 발표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미혼한부모의 정서 치유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치즈 치, 있을 유,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
마음이 치유되는 치유떡볶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한 미혼한부모, 그들의 상당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원가족과 갈등을 겪습니다.
안정적인 아동 양육을 위해 그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치유모임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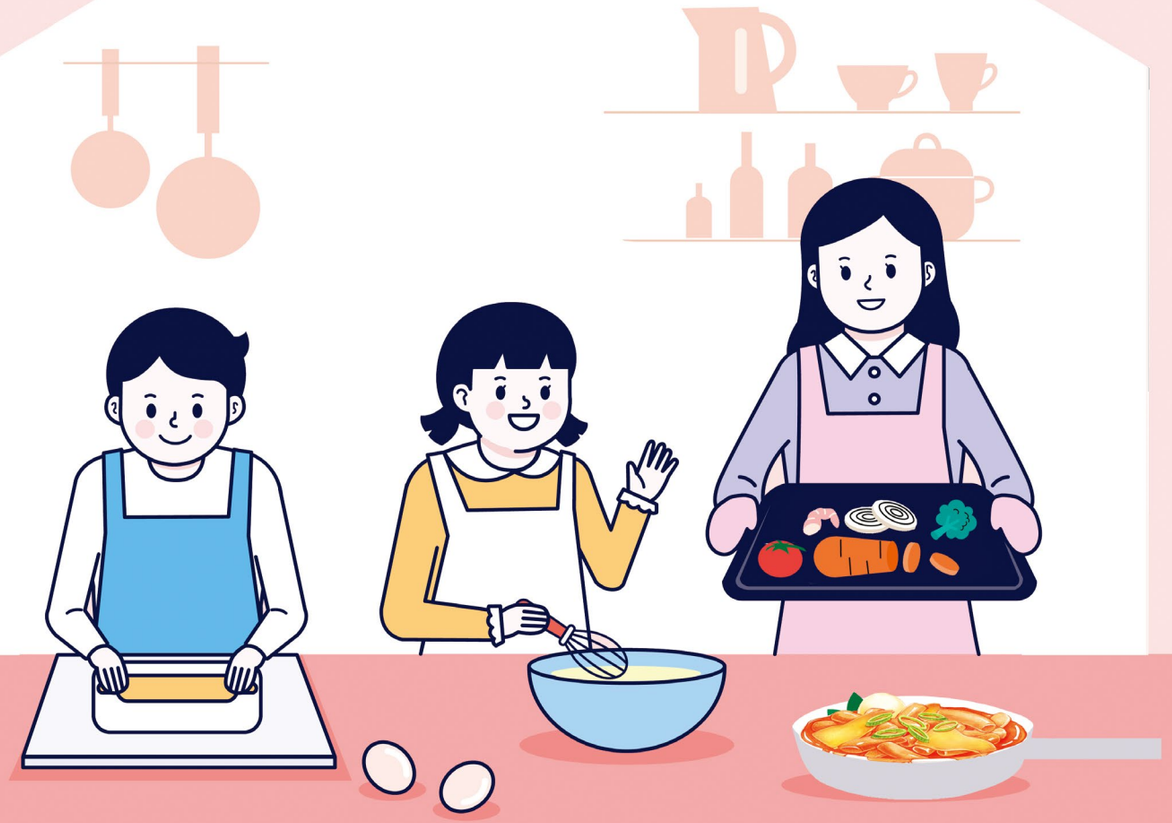
치유떡볶이 구매금액의 10%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혼한부모의 치유모임을 지원합니다.
치유떡볶이를 구매하시고 미혼한부모를 지원해주세요.

*치유모임이란? 미혼한부모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마음편히 고충을 털어놓으며 정서안정을 돕는 자조모임입니다.

NAVER 치유떡볶이

집쿡(COOK)! 해피홀트데이!

나눔지원팀 **송샤론**



지난 9월, 후원자 소모임 '집쿡! 해피홀트데이! – 치유떡볶이 만들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해피홀트데이는 후원자님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활동과 함께 각자의 나눔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번 해피홀트데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모집, 집으로 활동키트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활동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더 많은 후원자님이 참여할 수 있었고 활동 내용도 더욱 다채로웠는데요. 9월 한 달간 전국에 계신 정기 후원자님들이 따로 또 함께, 각자의 부엌에서 전해온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참여가 확정된 후원자님들께 활동키트를 집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활동키트는 치유떡볶이 3봉과 해피홀트데이 토퍼, 참여 미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미션은 총 3가지로 첫째, 가족들과 '집쿡! 해피홀트데이!'를 진행할 날짜를 정해 치유떡볶이를 요리하여 맛있게 먹는다! 둘째, 치유떡볶이 1봉은 이웃 또는 소중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셋째, 나만의 치유떡볶이 또는 진행 사진을 SNS에 인증한다!였습니다.

홀트패밀리로서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sns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편한 조리법으로 부모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수 있었다는 후원자님, 직장 동료와 같이 나눠 먹었다는 후원자님, 고3 아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홀트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에 첫 월급을 받으면 후원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는 소감까지–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해피홀트데이를 통해 '나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후원자님들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성이 넘치는 집쿡! 해피홀트데이! 후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굿네스

요리 못 하는 사람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볶이 키트 덕분에 나가지 않고 만들어 먹었어요! 코로나가 얼른 종식해서 다음엔 대면으로 해피홀트데이 맞이하길

#집쿡해피홀트데이 #후원하면_떡이_나와요

@하음맘

우리 하음이를 자주 돌봐주시는 아랫집 이모 가족과 치유떡볶이를 나누고, 고3인 아들에게 떡볶이를 해주면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사회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첫 월급을 받으면 정기후원을 시작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치유떡볶이캠페인 #진짜맛있어요 #치떡치떡

@지현

♥비대면 해피홀트데이♥
너무 맛있는 떡볶이를 보내주셔서 엄마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당!
어묵과 치즈 밀떡까지, 진짜 알차다잉!! 😊

#해피홀트데이 #먹스타그램 #떡볶이

@dajoa219

해피홀트데이에서 받은 치유떡볶이를 아이와 가장 친한 단짝 친구(3남매) 집에 전해주었어요.매운 것 못 먹는다던 친구와 친구 동생도 이 떡볶이는 맛있게 먹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향기나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떡볶이가 배달 온 순간 세 딸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떡볶이 마니아들이거든요. 간편한 조리법으로 아이들도 쉽게 요리할 수 있으니 더욱 좋았어요. 이번 기회로 홀트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도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떡볶이로 가족에게 행복을 준 홀트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더 큰 가족, 홀트패밀리#

홍보팀 **오진희** · 나눔협력팀 **김진희**

중소상공인 정기후원 캠페인 '홀트패밀리샵(#)'이 어느덧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이었지만 홀트패밀리샵(#) 가족들은 아이들을 위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던 가을, 더 많은 가족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홀트패밀리샵(#)이 MBC라디오 '오후의 발견 이지혜입니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홀트패밀리# 이란?

나눔에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중소상공인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일반매장, 학원, 병원, 온라인 쇼핑몰, 학교 학급 등 업종과 규모에 제한 없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홀트패밀리샵(#)의 나눔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홀트패밀리샵(#)의 나눔가족으로 함께한 업체는 업체명이 기록된 '아크릴 현판'을 전달해 드립니다.

후원금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입양대기아동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가정아동,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아동에게 지원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MBC FM4U '오후의 발견 이지혜입니다'와 함께한 홀트패밀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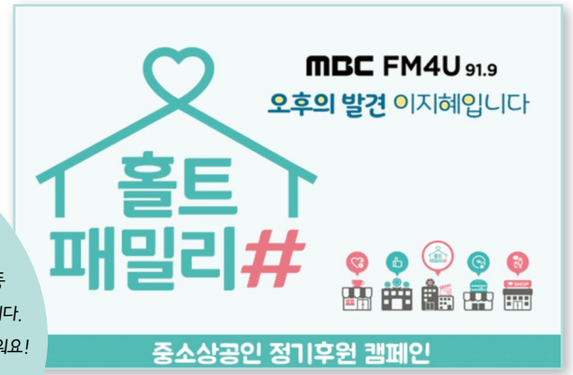
홀트패밀리샵(#)이 더 많은 분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9월, MBC FM4U 라디오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샵(#)이라는 공통점으로 방송인 이지혜 씨가 광고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까꿍! 방송인 이지혜입니다.
여러분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홀트패밀리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가게 수익의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착한 가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당, 카페, 병원 등
규모, 업종에 상관이 없고요. 후원해 주시면, 이를 인증하는 현판이 배송됩니다.
우리 엄마 보쌈집 하실 때 이런 게 있었으면 당장 가입했을 텐데요. 아~ 아쉬워요!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검색 고고띵~!

이 캠페인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 합니다.

ON AIR



오후의 발견 샵(#)디로서 밝은 텐션으로 홀트패밀리샵(#)을 소개해준 이지혜 씨! 그뿐만 아니라 홀트패밀리샵(#) 참여 방법을 영상으로 남겨주며 많은 분의 참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 홀트패밀리샵(#)을 유튜브 채널 'loveholt'에서 만나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해주신 '홀트패밀리샵(#)' 나눔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눔가족으로 쭉 함께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잠시 중단했었는데, 계속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다시 후원을 시작했지요. 나의 나눔이 우리 아기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아이들의 가족이 되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네요.

– '마산아구찜' **김숙희 후원자님**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입양대기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제가 일하고 있는 여행 업계도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홀트패밀리샵(#)으로 가족이라는 인연을 맺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이노비티가 되겠습니다^^

– '이노비티' **이승환 후원자님**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험난한 세상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는 나눔가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게뿐 아니라 주변 가게들도 홀트패밀리샵(#)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타이완웨이' **커후이산 후원자님**

병원도 홀트패밀리샵(#)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병원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시작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홀트패밀리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 '태창한의원' **김영선 후원자님**"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신 홀트패밀리샵(#). 우리 아이들은 '홀트패밀리샵(#) 나눔가족'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인 모든 홀트패밀리샵(#) 나눔가족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홀트패밀리#
참여 방법

신청하기 ▶ 친절한 상담 ▶ 가입축하 및 현판 전달 ▶ 나눔 소식 알리기

Since 1955, 시작이 사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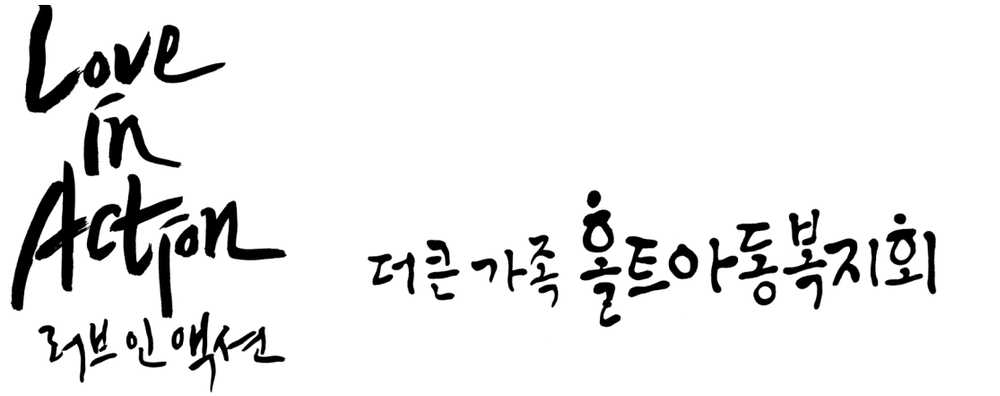
홍보팀 **우은영**

아이들을 지속해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긴급구호보다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임을 깨닫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설립자 해리 홀트 · 버다 홀트 부부. 홀트 부부의 사랑으로 시작된 홀트아동복지회는 그 뜻을 이어받아 지난 65년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올해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하여 오랜 시간 재능기부로 함께해준 광고회사 'HS애드'와 캘리그래퍼 강병인 씨가 각각 엠블럼과 캘리그래피를 제작해주었습니다.

엠블럼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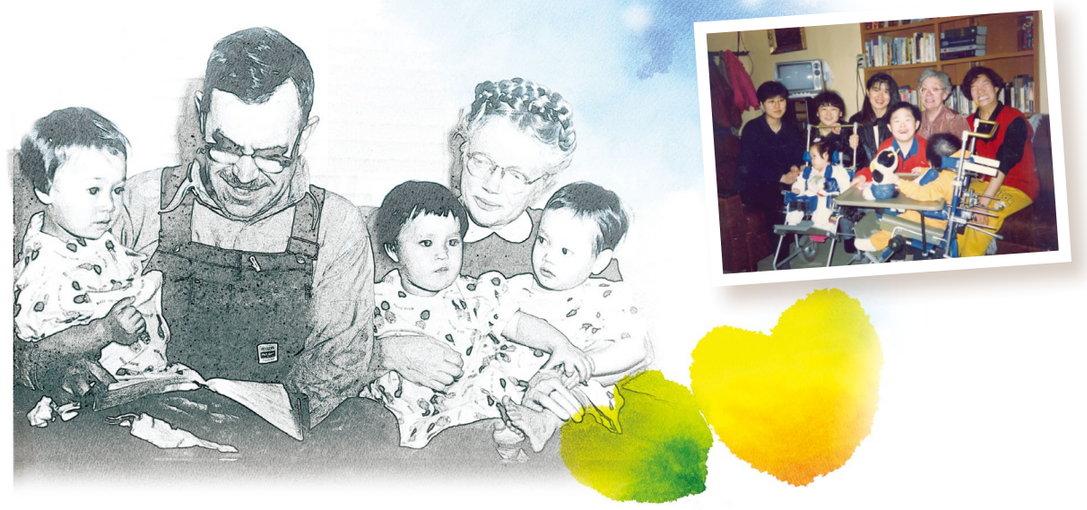
엠블럼 응용형

65주년 기념 엠블럼 디자인은 '연결, 사랑, 행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메인 컬러인 '남색'과 서브 컬러인 '민트색'을 조화롭게 활용하였습니다. HS애드는 2013년부터 재능기부로 함께해오며 2015년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CI 디자인 및 라디오 광고 시나리오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회 국내 · 해외아동결연 '향기 나는 결연, 허브'의 브랜드 이미지 및 라디오 시나리오 제작에 참여하며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제25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한국광고주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에서 라디오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으며 '제24회 올해의 광고상(한국광고학회 주최)'에서는 금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캘리그래퍼 강병인 씨는 '사랑을 행동으로',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꿋꿋한 엄마' 등 우리회에 다수의 캘리를 기부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입양인 모국방문프로그램에서 붓글씨 교육을 진행하며 우리회 기관 이미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65주년을 맞아 'Love in Action'과 '더 큰 가족 홀트아동복지회' 캘리그래피를 또 한 번 재능기부하여 우리회 미션 · 비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말에는 도서 'who? 스페셜 : 홀트 부부'를 제작, 출판하여 연고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전쟁고아들을 품은 설립자 해리 홀트 · 버다 홀트 부부가 사랑을 실천한 활동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65년간 홀트아동복지회가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더해준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내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은 가정이 필요한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도움이 필요한 엄마에게 힘이 되는 손길을, 세계의 더 많은 아이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주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에 더 큰 가족이 되어 세상의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코로나19 관련 배분 사업 시행

위탁모와 입양대기아동은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공동모금회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원받았습니다.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입양대기아동들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협약 체결, 현물 3천만 원 상당 지원

7월 20일,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기부금과 기부물품 총 3천만 원 상당의 현물을 후원했으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담긴 코로나19 위기지원 키트를 한국콜마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 한국콜마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 충청지역 미혼모자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올리브영, 미혼한부모를 위한 비대면 심리정서사업 지원

7월 29일, 미혼한부모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지속해서 미혼한부모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사업에 후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타강사 김미경, '김미경의 리부트' 초판인세 전액 전달

김미경 홍보대사는 베스트셀러 '김미경의 리부트' 초판인세 3천만 원을 미혼한부모 자녀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우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은 미혼한부모 자녀에게 스마트 학습기기를 지원하여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영웅시대 나눔의방), 데뷔 4주년 기념 후원물품 전달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방' 회원들이 스탠드 선풍기와 마스크를 기부해주었습니다. 지난 6월 임영웅 씨의 생일 기념 후원을 시작으로 두 번째 나눔을 실천해주었습니다. 후원물품은 미혼한부모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꾸준한 기부활동을 펼친 팬클럽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어때, 국내 위기가정아동 지원 협약 체결

8월 31일, 국내 대표 종합 숙박 · 모바일티켓 플랫폼 '여기어때'와 국내 위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꼭 필요한 실내 놀이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부

㈜비에이치아이인터내셔날, 방역 물품 후원

8월 20일, 유아용 마스크와 항균 필름 등 5천4백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미혼한부모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청지부

세종 BOK아트센터 '미혼한부모 기부콘서트' 개최

8월 13일과 20일,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기부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명품 연주자들의 출연으로 13일에는 한국 가곡 콘서트, 20일에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진행하였으며 수익금 전액을 미혼한부모 지원을 위해 충청지부에 기부하였습니다.

홀트복지타운

버다홀트 할머니 20주기 추도예배 실시

7월 31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내부 인원만 모인 가운데 버다홀트 할머니의 20주기 추도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버다홀트 할머니와 홀트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극복 응원 키트 제작

8월 25일, '코로나19 극복 응원 키트'를 제작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로 인한 복지관 휴관으로 어려워진 이용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마음이 모인 키트를 전달하였으며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책놀이 친구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독서문화 프로그램 '2020 책놀이 친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진행하였으며 총 6회기로, 책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책과 함께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사랑가득! 정성듬뿍! 홀트가족 자원봉사단 여름김장 후원

7월 15일, 맛있는 김치가 배달되었습니다. 24년 전통의 홀트가족자원봉사단에서 후원하여 진행된 상반기 전체 활동으로, 올해 4번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행사를 간소화해 완제품을 전달해드렸지만 따뜻한 마음은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건강교육 실시 '하루 한 번 쭉쭉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지원사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세라밴드를 이용한 동작을 배워 "하루 한 번 쭉쭉쭉" 건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으로 무료함을 표출하던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통해 재미를 더하고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땡큐박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나눔실천교실 참여 아동들이 '땡큐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박스 안에 직접 만든 미니 꽃다발과 응원간식, 개인방역물품과 응원이 담긴 편지를 담아 보건소, 경찰관, 환경미화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고 계시는 150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수영종합사회복지관

'살맛 나는 세상이야기' 결연후원금 전달식

7월 23일, '살맛 나는 세상이야기' 참여 회원들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중장년층 남성들이 모여 요리를 배우고 친구가 되어 주변 이웃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던 중,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고자 결연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접속! 로그IT교실

IT교육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지역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접속! 로그IT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IT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해가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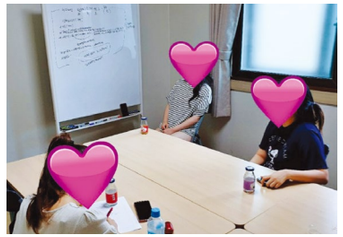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수기 공모전

미혼한부모가정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며 미혼한부모의 내면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9월부터 '공감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미혼한부모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운뜰

긴급재난지원금 후원

김옥자 후원자님이 고운뜰의 아기들을 위해 써달라며 자신이 받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후원하였습니다. 지원금 후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후원금으로 구입한 분유로 아기들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준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뜰

자조모임 '소통의 날'

7월 22일, 아름뜰 가족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새로 입소한 가족을 환영하면서 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서로 확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면서 더 즐거운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대구클로버

성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와 함께 대구클로버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성 인권교육 강사로 양성 후 어린이집, 학교 등에 취업을 연계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개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10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전클로버

아동 오감 퍼포먼스 미술 수업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과 '집으로 찾아오는 오감 퍼포먼스' 미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오감을 발달시키고 내면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표출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랑의 날'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센터 이용이 중지되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가정에 자녀와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는 키트(마스크걸이/케이크/목재수납장/비누만들기 등)를 전달하였고 대상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레인보우 브릿지 사업 시행

8월 15일, 학령기 아동을 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엄마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1회기로 스튜디오에서 파스타도 함께 만들고, 참가자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7회기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주영아원

소중한 인명구조

지난여름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물속으로 몸을 던졌지만, 전주영아원 강승범 직원이 발견하여 구조하였습니다. 수난사고 현장에서 투철하고 헌신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전주 덕진소방서장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후원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안내

아동 · 청소년후원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입양대기아동의 양육비, 의료비로 사용되며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 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운영해 체계적인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 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홀트 패밀리#

홀트패밀리#이란?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중소상공인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 학원, 병원, 카페 등 규모와 종류는 달라도
따뜻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신은 나눔 가족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후원문의 02)331-7000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

Creating a world where diseases are rare and curable

For more than 30 years, Gilead has created breakthroughs once thought impossible for people living with life-threatening diseases. We are a leading biopharmaceutical company with a pioneering portfolio and ever-expanding pipeline of investigational medicines.

Our commitment goes well beyond science. We innovate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barriers and providing access to healthcare for people who need it mos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gilead.co.kr

We are committed to a better, healthier world for everyone.

GILEAD
Creating Possible

© 2020 Gilead Sciences Inc.